

더붙어 죽고 더붙어 나탈수 있게

19면에서 계속

해보지만 그것도 결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니 주인공을 찾고 있지만 체 없는 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좀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감히 여쭙니다. 그리고 생활이 불발이고 수행처인데 출가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답 믿음입니다. 진짜로 믿는 것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통신이 됩니다. 나온 구멍에 진짜로 놓았는지, 그 구멍으로 진짜 들어왔는지, 그래서 통신이 됐는지 중요합니다. 진실로 믿어서 통신이 된다면, 그러니까 대외 소리를 거쳐 사대로 통신이 된다면 자기 마음이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수습할 것은 수습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부처될 자격이 있는데, 제 부처를 진짜로 믿는다면 마음은 천차만별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몸을 먼저 생각합니까? 몸 따라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따라 몸이 편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잘 되려고 하지도 말고 못 될까를 염려 하지도 말고 어차피 믿고 맡길 것이라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충실한 하인이 되어야 될 자꾸 따지겠습니까?

하인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따지지 않죠. 주인도 따지지 않는데 하인이 왜 따지느냐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과거의 종문서에서 풀려나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맡기세요. 믿는다면 맡입니다. 아니, 못 믿겠다 싶어도 이치가 그러하니 그렇게만 맡기세요. 종 노릇을 철저히 하란 말입니다. 예전엔 한 번 종이 되면 자식까지도 전부 종이 되었습다.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니 어찌겠습니까. 종문서에서 벗어나려면 종답게 종노릇을 해야 풀려날 기회를 잡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종이 주인 노릇을 해보세요. 주인 역할에 끼여들어 참견을 하다가는 그냥 맞아 죽기 십상이죠. 그렇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지도 못하고 주인도 찾지 못하니 자자손손 종노릇을 면할 길이 없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이치와 같이 제 부처, 부처 아닌 부처가 본래 있으니 그것을 진짜로 믿어라. 그 래야만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출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떠나서 하는 거예요. 또 출가를 하더라도 마음으로 출가를 해야지 몸만 출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출가를 하는 것은 가정을 버려야 하고 형제들이나 부모님에 대한 애착도 버려야 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나까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 하지만 살아 나온 자



그림 · 최주현

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갈 자리도 없어요. 생사회화를 몽땅 치워버렸거든요. 내 몸통이가 공에서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오는 건 어디서 왔으며, 그 자리에서 가는 건 어디로 갈 것이 있겠습니까. 그 뜻을 잘 생각해보시면 이 공부하는 데는 얼마만큼 열심히 진실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출가를 하게 되면 얽히고 설린 문제가 적으니 공부하기가 좀 나온 점이 있죠.

법망은 무엇을 뜻합니까

문 스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법망'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매우 궁금해하면서 잠들었더니, 꿈에 크고 넓은 산하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고기잡는 그물처럼 되어 있었고, 저는 거인이 된 듯이 그러한 산하를 밟고 밟았습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충족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만 풀어나려고 해서 부끄러운 법칙인지, 부처님의 뜻인지, 신의 섭리인지, 고경되지 않게 돌아가는 데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어떤 사람이 아침에 도둑이 들 어와서 전부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친정에 와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 같으면 한시 보이지 않는 법망을 쳐놓고 두 다리 쪽 펴고 살 수 있을텐데 이런 도리를 모르니까 안절부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더욱더 이 마음의 도리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살아 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놓는 이유가 우선에 내가 만나면 놀라니까, 죽지는 않겠지만 놀라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그저 모두 놀라지 않게, 무섭지 않게, 풀이 아니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놓으면 들어올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내 한생각에 의해서 법망을 쳤다가 풀다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지구의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도 망이 쳐져 있는 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에도 법망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세포가 법망이죠. 이 법망이 없으면 사방 군데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못 삽니다. 세균성도 들어오고 영계성도 들어오고 유전성도 들어오고, 전부 끼어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법망이 없는 데는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잘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잘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카바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법망이예요.

그러니 '이런 것이구나' 하고만 끝이 나면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 내 마음의 근본을 진실하게 믿고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응용하고 실험해 보시면서 이 마음 도리를 체득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도리가, 꽃나무도, 무정물도, 생물도 모두 내가 말하는 대로 알아듣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알아듣게 돼 있어. 하다 못해 집 안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뜻으로 알아듣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상대에게로 가기 때문에 알아 듣게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서 못 알아듣는데, 상대가 지극하게 마음을 내면 알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뿌리는 원래 돌이 아니기에 뿌리를 통해서 모두 연결이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이야.

종문서 벗으려면 무조건 맡기세요 뿌리는 돌 아니기에 마음내면 전달

동생이 듣고 말하지 못해요

문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선원에 동생들과 다니면서 주인공을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서 관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주인공을 관하는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 이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하다 못해 병원에 가서 진찰할 돈도 없었대요.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배속의 아이는 바로 선 것 같지를 알고 그래서 하루는 돈을 빌려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거꾸로 어린애가 서 있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랬대요. 거꾸로 애가 서 있다고 그러는데 또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때도 없고 아주 망망하더래요.

그런데 누구한테 선원 얘기를 듣고 여기를 찾아 왔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이 마음의 도리를 얘기해 준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서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나와 너와 돌이 아니요, 모두가 한마음인데 그렇게 지금 돈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거꾸로 서서서 이렇게 힘들면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몸과 돌이 다 불편하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선 막 배속의 애한테 시정 얘기를 하하시고 그렇게 맡겼대요. 그랬는데 한 서너 시간을 지내고 보니 이상스럽게 배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지더라요. 그러더니 정말 낱을 때 돌만 애가 똑바로 섰다는 거야. 배속에 있던 어린애가 엄마가 마음으로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지.

나는 놓고 상대가 놓지 않을때

문 스님이 말씀하신 '인생은 고가 아니다' 라는 책을 읽고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의문나는 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일들을 모두 놓았다고 생각했고 놓았다는 생각조차 놓았는데 저와 그 상황에 공존했던 다른 이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나와 함께 하는 지금 상황에서 다른 어떤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가는 생활선은 외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만 비우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선을 행하고 있는 제 자신과 다른 일반대중들과는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또 가끔 생활속에서 모든 것을 놓고 가다보면 지난 일들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와 함께 했던 다른 이가 그 상황을 기억해주길 원할 때 대답해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주인공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간혹 당황스럽습니

다. 이러다가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입니다. 스님의 넓고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잘못을 남에게 떠다 남기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모두에게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을 해라. 그럼으로써 나쁜 게 다 싹 가시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야. 누가 뭐, 잘살지를 말라나, 돈을 벌지 말라나, 사랑하질 말라나, 흠을 추질 말라나, 친구와 놀지 말라나, 누가 하질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잘 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그게 하면서도 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거야. 즉 말한 자면 내 몸통이 속에 지금 생명들이 다 작용을 하고 가는데 한 귀퉁이에서 작용을 안 해 준다면 내 몸통이가 쓰러져.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작용을 하고 가는 그 자체에서 볼 때에는 내가 화를 냈다. 이런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업적 속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화를 내려고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돌려 놓으라는 소리지. 어느 것 하나인들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필요할 때 재작재작 튀어나와서 일을 하는데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남들을 리드해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자꾸 관해. 무슨 일을 하든 요량이 있어야 되고 지체가 있어야 모든 것을 요량해서 갖 있게 모두 나눠먹을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모두가 귀찮아서 돌아가는 생활이 그대로 여여 합니다. 그대로 여여함인데, 함께 돌아가는 걸 모르고 나 하나 개별적인 것이 그냥 사는 건 줄 알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더 마음의 폭을 넓혀서,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우리 생활에서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을 알아야만 돌이키게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본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에 티끌 하나 없이 자유스러워 질려면, 나 혼자만 죽어서는 안되고 더불어 함께 죽어서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더불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요량이 생길 수 있도록 가는 거 잡지 말고 오 는 거 막지 말라. 다텈는 대로 내가 편안하게 받아 들어라는 거야. 믿고 맡기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득해 나가기를 당부해요.

법공양메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메이지는 역간의 심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동지승의 세계(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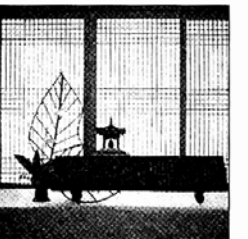
산사의 향기(대·소)



연화의 세계(대·소)



탑이 있는 풍경(대·소)



산사의 꽃향기(대)



신비의 달마도(소)



석굴암(소)



백련(소)



북한의 사찰(소)



선의 세계(소)



금강산의 사계(소)



미니 차질이 달력

8월 대지 마닐라(14매)

종류

- 미소동자
- 지혜동자
- 천진동자
- 동심동자
- 천희동자
- 홍련
- 백련
- 금강산 보덕암
- 해금강 일출
- 요양산 보현사 일출
- 금강산 표훈사
- 만다라
- 금강산 미륵전
- 탑이 있는 풍경
- 석굴암
- 낙산사 해수관음
-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불
- 보리암 해수관음
- 달마도

■ 사진 · 안정현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신의 세계, 석굴암은 한국불교사건 예술의 독보적인 단행본교수의 역풍이다
안정현은 필장 영상 편집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 사진에 담겨왔다. 석굴, 국립공원, 석굴암, 일출의 미소, 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들이 있으며, 전 한국 사진작가 협회회원 및 대한 사진예술가협회 차원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5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기:대(30×31cm) 국6절, 가격:1,600원
소(26×26.5cm) 사륙12절, 가격:1,400원
■ 매 수: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S프린)
■ 주문부수:100부 이상
■ 미니 차질이 달력은 200부 이상

미니 차질이 달력 →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제작문의 : (02)723-4306 팩스 : (02)738-8682